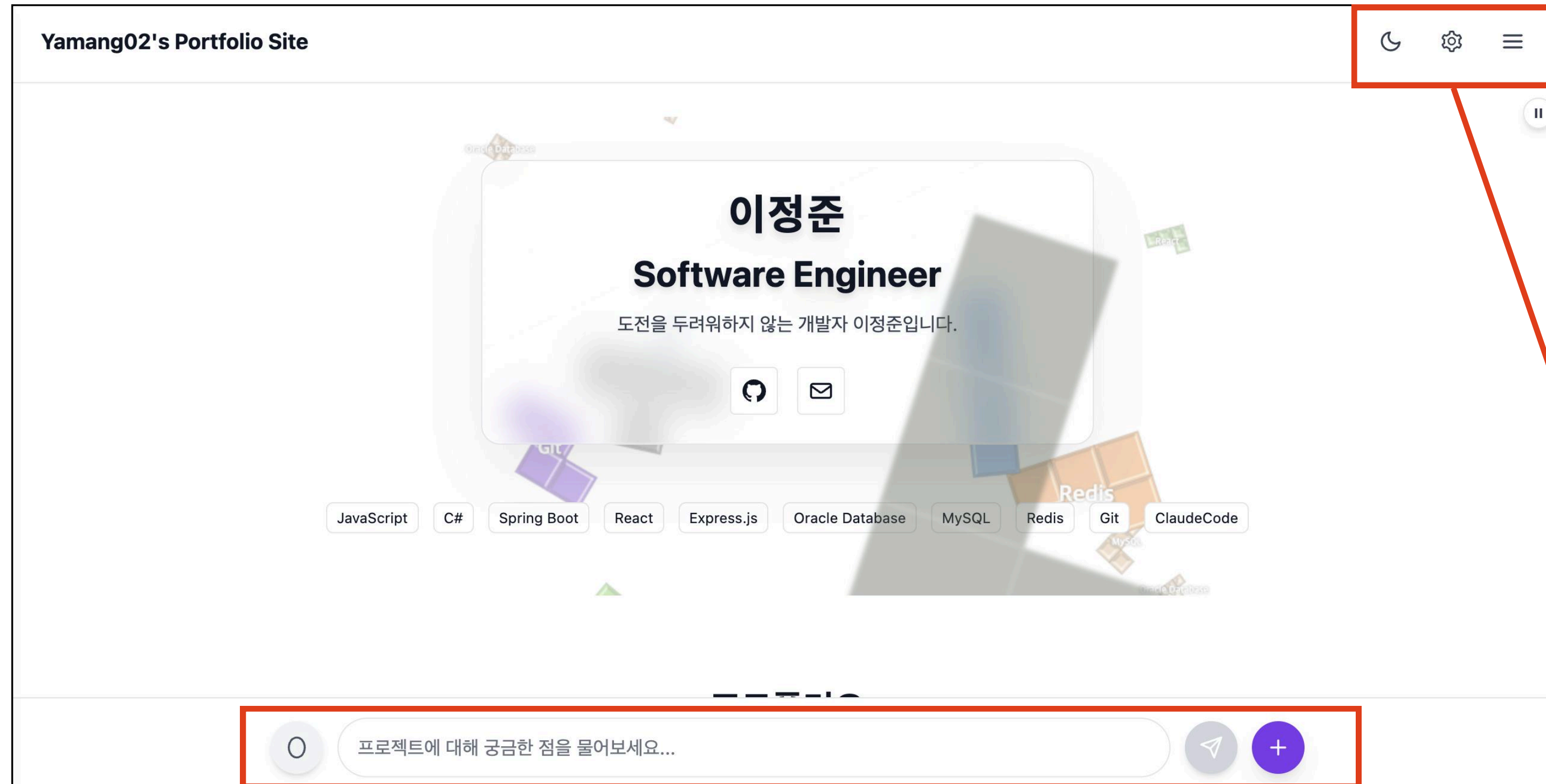


웹 포트폴리오 UI/UX 피드백

이정준님

1. 메인페이지

전반적으로 시각적으로는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임팩트 있는 방향으로
+ 내용은 간결하면서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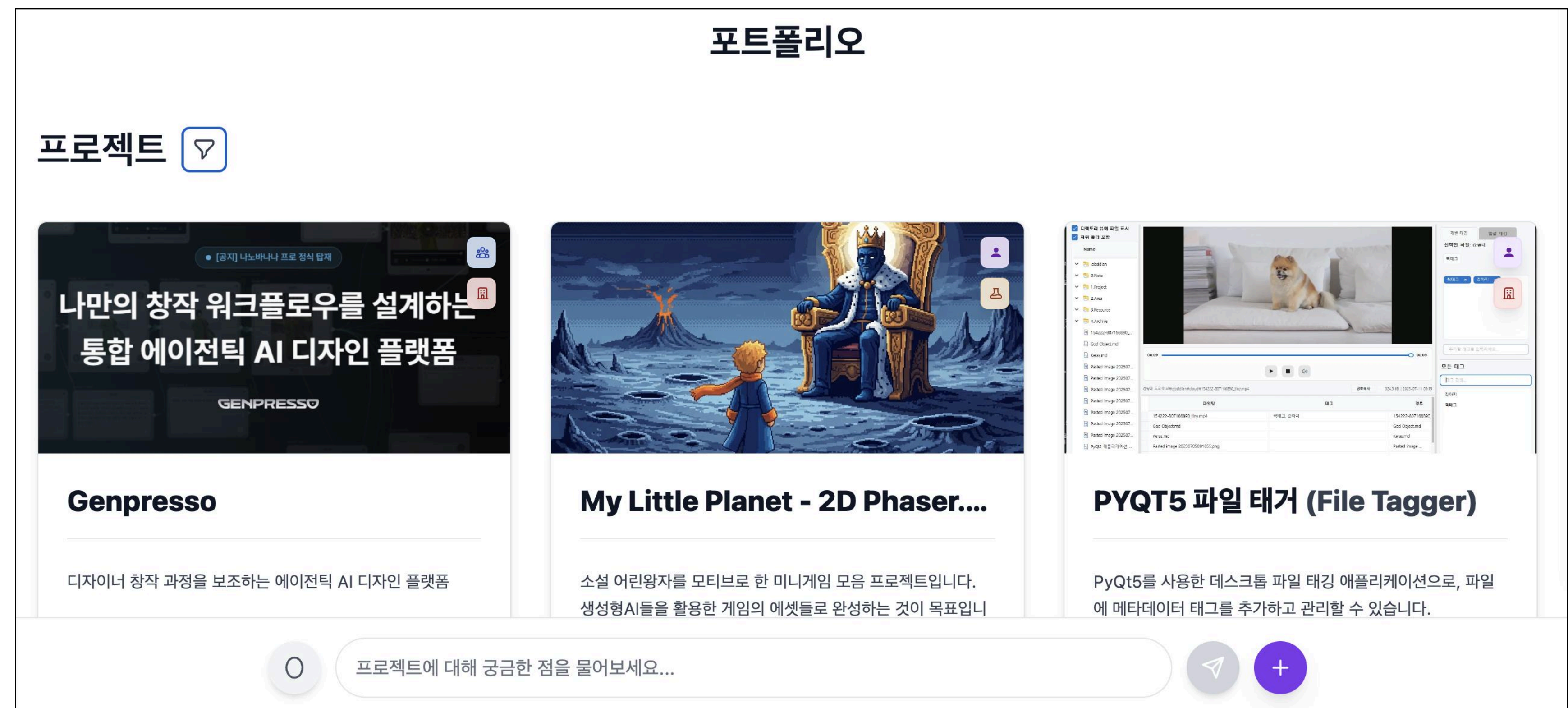


- 인사담당자, 기술자 등 해당 사이트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방문'입니다. 사이트에 진입해서 내용을 둘러보면서 정준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 '어떻게 '간결하면서 핵심적으로 잘 표현하는지'가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글자, 문장 정리, 배치가 중요합니다.

- 다크모드로 전환해서 개인 맞춤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 모드 전환 / 관리자 설정 / 메뉴 중 방문자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 메뉴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자 설정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 메뉴 종류가 많지 않고 방문자가 빠르게 찾고 전환할 수 있도록, 메뉴 위치를 변경하고 전면에 잘 보이도록 수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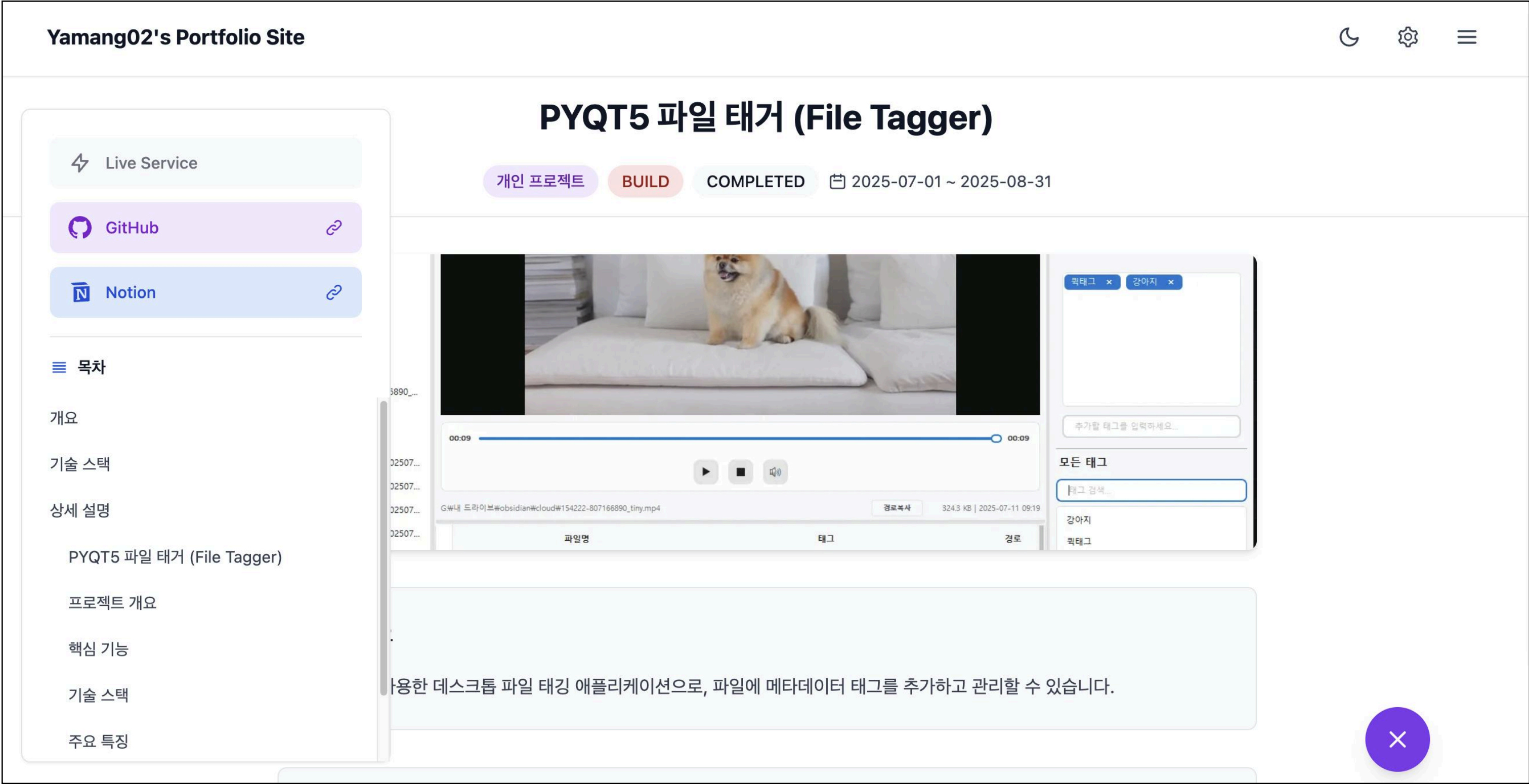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의 메인은 얼굴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경의 테트리스가 무엇을 상징하거나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컨셉이 테트리스라면 이것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텔링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임팩트 있는 작업물을 전면에 보여주거나,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 사진, 캐릭터, 컬러 등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반적으로 첫 진입 시,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술들이 버튼 UI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액션이 없고 정보 제공의 경우엔 버튼처럼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단 고정으로 프로젝트 탐색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상시 고정으로 눈에 거슬리거나 스크롤을 내릴 때 다음 내용이 보여지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첫 방문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방문자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지,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포트폴리오 목록



- 필터 제공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검색 필터가 너무나 많아 처음에 당혹스럽거나 압도되기도 합니다. 검색을 좀 더 간결하게 제공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다만, 호버했을 때 아이콘에서 풀네임(개인, LAB 등)이 나오는 것은 워딩이 길지 않기도 하고, 호버를 해야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자로 상시 노출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호버했을 때 깃허브의 아이콘도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클릭 시 깃허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 변화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 썸네일에 호버했을 때 명확한 구분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선과 유사한 형태라 홈페이지 보다는 블로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 차별화나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가장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썸네일 혹은 간결한 설명으로 표면에서 궁금증을 유발시켜 클릭 유도 →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직관적이면서 프로젝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성과 위주의 타이틀 혹은 서브 설명에 녹아드는 게 좋아보입니다.

3. 포트폴리오 상세내용



- 왼쪽의 고정 메뉴로 인해 상세 내용이 잘려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 왼쪽 메뉴의 영역을 줄이고, 상세 내용에 포함시키거나 숨겼다 펼쳤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더 좋아보입니다.
 - 왼쪽 메뉴의 X버튼이 동 떨어져 있어서 연관성이 없이 느껴집니다. X버튼은 메뉴 내에 속할 수 있도록 하고 눈에 너무 잘 띄는 컬러보다 그레이 톤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서비스 링크와 깃허브, 노션 등 관련 정보가 상세 페이지에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한 것은 좋습니다.
- 상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이틀 역시 꽤 큰 부분을 상시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릴 때는 안 보이게 하거나 같이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쪽이 내용을 집중하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력, 자격증, 교육 섹션

경력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리콘랩스

Software Engineer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AI / 온라인 콘텐츠 운영 분야) 참여 AI 기반 서비스 회사인 리콘랩스 파견

AWS

(주)디아이티

디아이티

ERP 개발/유지보수 엔지니어

노루그룹 전산 계열사에서 ERP,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IT외주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Oracle FormsPL/SQLJavaC#MSSQLSAPREST APIGitGitLab

배재고등학교(비개발)

배재고등학교

국어교사

국어교사, 담임

상명고등학교(비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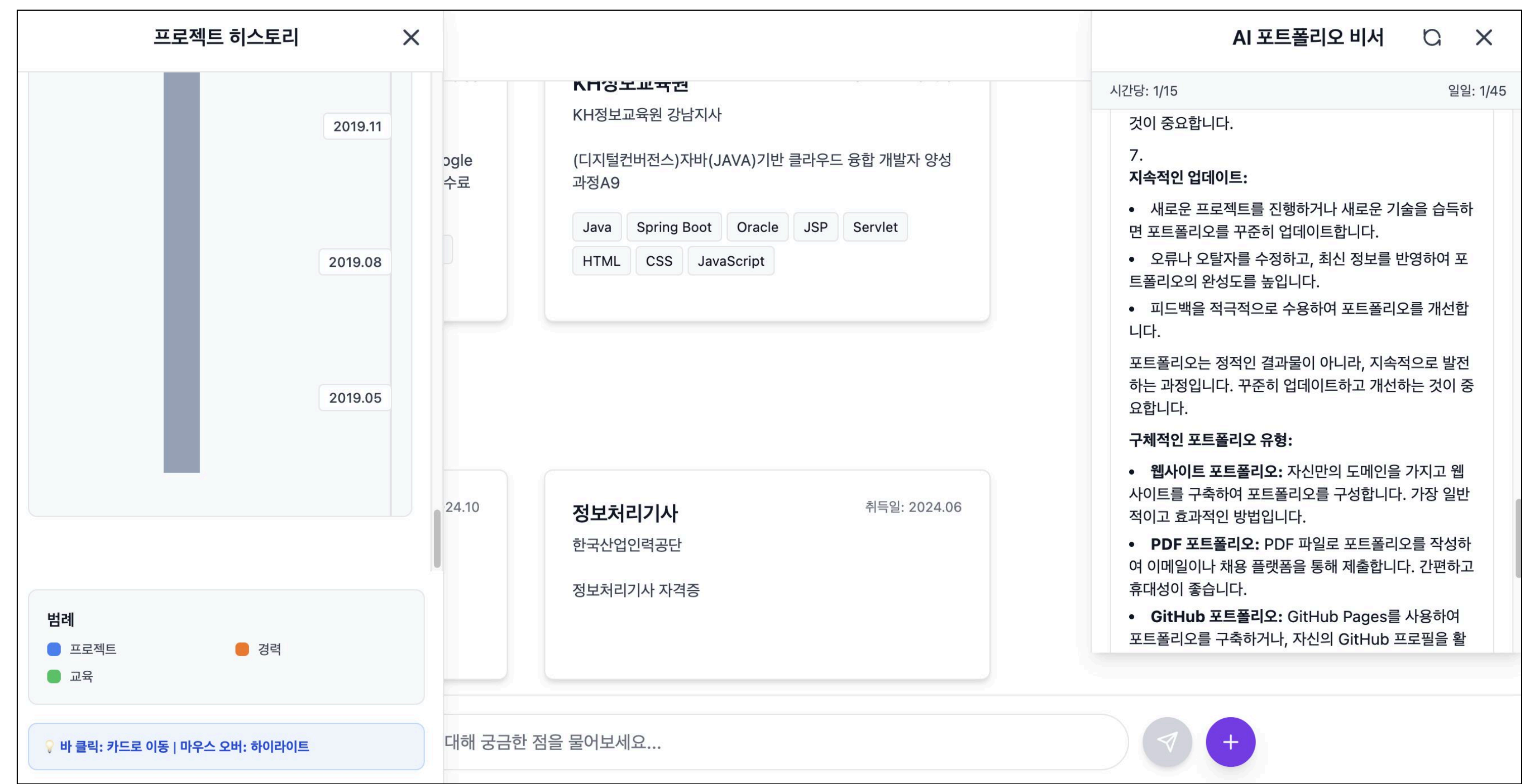
상명고등학교

국어교사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경력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것만 나열되는 형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포트폴리오에서 경력은 이력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영역을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핵심적이고 잘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호버를 했을 때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포커싱이 되는데, 액션이 이뤄지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보 나열식이 더 알맞아 보입니다.
→ 교육, 자격증 항목도 경력과 동일하게 정보 나열식으로 심플하지만 핵심적이며 잘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 정보 나열식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글자 크기, 굵기, 컬러 등을 기준으로 중요한 정보는 눈에 더 잘 띌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는 약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AI 포트폴리오 비서



- AI 메시지 입력 필드 쪽에서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경로가 어색합니다. 프로젝트나 경력 관련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섹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 프로젝트 히스토리는 경력 혹은 프로젝트 섹션의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세로 스크롤보다는 가로 스크롤로, 가로 스크롤 보다는 한 눈에 볼 수 있거나 많이 화면을 이동시키지 않을 정도로 함축해서 보여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 AI 포트폴리오 비서 기능은 좋아보이지만,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 매우 유용한지는 현재 버전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술 능력을 파악하기에 좋아보일거라 생각되지만,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서는 어떨지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AI 포트폴리오 비서를 통해서 방문자에게 어떤 편의 혹은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 해당 목표에 맞춰 AI 포트폴리오 비서를 컨셉화 한다면 기능도 보여주면서 유용성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 감히 의견드립니다.
 - Ai기술력이 메인 차별화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면, 첫 진입부터 AI비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탐색하거나 보여주는 연출도 색다르면서 컨셉추얼하기에 아이디어 드립니다.
 - AI 비서의 역할이 '비서'로만 한정될 것인지, '가이드'로써 해당 프토폴리오 웹사이트를 안내할 것인지도 설정된다면 방문자에게 '경험'을 제공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인 UX/UI 피드백

1. 인사 담당자도, 개발자도 모두 결국엔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포트폴리오 사이트는 '나를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자가 나에 대한 탐색을 빠르고 쉽게 하게할 것인지, 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포트폴리오를 이리저리 살펴보게 할 것인지 등 전략을 세운 다음에 디자인 구성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기능이 제공되었을 때 그 효과가 커집니다.
AI 포트폴리오 비서는 기능 면에서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이 현재는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AI를 중심으로 사이트를 구성해 보거나, 포트폴리오 탐색 자체를 검색 필터가 아닌 AI비서를 통해서 진행하게 하는 등 '방문자가 이 기능을 언제 가장 필요로 할까'를 고민하여 기능 발생 시점을 재설정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 혹은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컬러, 형태,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시각 전개를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메인(히어로 섹션)은 첫 진입 때 보여지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미지나 시각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나타내는 글귀 등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4. 전반적으로 글귀는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유사한 정보는 하나의 그룹에, 그리고 기능에 맞는 UI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액션이 없으나 액션이 있어보이게 매치되어 있는 UI,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프로젝트 타이틀 등 방문자가 가장 집중해야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최소화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포트폴리오를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경험하는 흐름'으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포트폴리오 탐색을 위해 검색 혹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보다, 웹사이트를 구경하고 둘러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체험해 보는 흐름이라면 별도의 기능을 선택하러 방문자가 액션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개발 능력과 기술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제안 드리는 참고 레퍼런스들

심플할수록 프로젝트 설명이나 기능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개인 웹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워 템플릿 위주로 공유드려봅니다.

1. <https://pearl.framer.website/>
→ 프레임어의 포트폴리오 템플릿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프로젝트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선을 잘 잡아줍니다.
디자이너 기준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상세페이지는 프로젝트 날짜 등 정보 기재 항목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2. https://www.threads.com/@uxdesign.mine/post/DS5V_sziPpm
→ 스레드에서 발견한 포트폴리오 영상입니다. 처음에 마우스를 따라 고양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방문자가 그저 움직였을 뿐인데
기술 혹은 기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흐름을 추천드려봅니다.
 3. <https://www.sitebuilderreport.com/inspiration/engineer-portfolios>
→ 2025년에 기고된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주는 20개의 포트폴리오 사례들입니다.
제작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직군 모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기술자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별도의 탭은 구분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력/경력기술서를 함께 포함한 웹사이트를 구상중이시라면 프로필 메뉴를 구성하시는 쪽으로 권장드립니다.
 -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는 개발자 분이 가장 잘 볼거라 생각합니다.
기능 부각 측면에서는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하신 후에, 시니어 개발자 분께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